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수퍼비전에서의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및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 상 길

수퍼비전에서의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및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계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박 상 길

박상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바이저의 수준별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대학의 상담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60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배정되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t검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정서가 감소하였다. 둘째,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수용의 경우에는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과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에서의 수준별 타당화개입은 높은수준의 타당화개입일수록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감소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증가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퍼비전 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부적정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타당화개입은 수준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제공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어 : 수퍼비전, 타당화개입, 수준별 타당화개입, 초보상담자

학 번 : 2017-23646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가설	6
II. 이론적 배경	7
1. 타당화	7
1) 타당화의 정의	7
2) 타당화의 효과	9
2. 수퍼비전	11
1) 수퍼비전의 정의	11
2) 수퍼비전모델	13
A) 심리치료모델	14
3) 수퍼비전에서 타당화개입	15
3. 초보상담자	18
1) 초보상담자의 정의	18
2) 초보상담자의 특성	19
3)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	20
III. 연구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도구	24
1) 연구자극	24

(1) 가상시나리오	24
(2) 실험자극	25
2) 측정도구	25
(1) 부적정서	25
(2)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26
(3) 자기수용	27
(4) 조작확인	28
3. 실험 절차	29
1) 실험과정	29
(1) 실험안내 및 동의서 작성	29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30
(3) 사전측정	30
(4) 집단별 영상시청	31
(5) 사후측정	31
(6) 디브리핑	31
4. 자료분석	32
IV. 연구결과	33
1. 조작확인	33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33
3. 부적정서 변화	35
4.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변화	36
5. 자기수용 변화	38
V. 논의	40

1. 요약 및 논의	40
1) 수준별 타당화개입 결과에 대한 논의	41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43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44
참고문헌	46
부록	53
Abstract	72

표 목 차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22
<표2> 실험 집단 구성	23
<표3> 실험절차	29
<표4> 타당화 정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 결과	33
<표5>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34
<표6> 집단별 부적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35
<표7> 불안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36
<표8> 집단별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점수의 기술통계	37
<표9>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38
<표10> 집단별 자기수용 점수의 기술통계	38
<표11> 자기수용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퍼비전은 상담자의 상담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내담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행위이다(Bernard & Goodyear, 1998; Bradley & Ladany, 2001; Campbell, 2000; Holloway, 1995, 1999; Kadushin, 1992; Kaiser, 1997). 김계현(1992)은 상담자교육의 영역을 이론교육, 현장실습, 수퍼비전으로 분류하였으며, 유능한 상담자를 기르기 위한 상담자 교육의 핵심으로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퍼비전의 목표는 수퍼바이저의 상담전문성과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수퍼비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퍼바이저의 상담수행기술과 상담자발달을 감독하며, 수퍼바이저의 발전과 목표 성취를 평가한다(Bernard & Goodyear, 1998).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관계를 통하여 초보상담자가 전문상담자로서 발달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들을 습득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주는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수퍼비전은 초보상담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수퍼바이저가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내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의 경우, 수퍼비전을 받지 않은 상담자와 비교할 때, 상담에 대한 자신감, 적절한 개입방법, 내담자를 평가하고 사례개념화 하는 능력, 상담수행에서의 의사결정 등과 같은 상담자발달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Hill, Charles, & Reed, 1981; Wiley & Ray, 1986).

수퍼비전모델은 심리치료 이론에 기대어 발달하였다(Bernard & Goodyear, 2004). 수퍼비전 초기에는 기존 심리치료의 이론과 방식, 기법 등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야 발달적 수퍼비전모델, 통

합적 슈퍼비전모델 등과 같은 슈퍼비전 이론에 기반한 슈퍼비전모델들이 등장하였으며, 슈퍼비전이 상담의 세부전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Bernard, 2005). 미국의 결혼과 가족치료협회(AAMFT: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에서도 1983년 최초로 슈퍼바이저 자격을 만들었으며, 관련 규정들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심리학회 상담분과(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들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자격증 취득에 관한 수련과정의 일부분으로 슈퍼비전을 제도화함으로써, 슈퍼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슈퍼비전에 대한 강조는 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과 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Bernard & Goodyear, 2004),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슈퍼비전관계, 슈퍼비전형태, 슈퍼비전모델, 슈퍼비전의 윤리적 쟁점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상담을 제공하는 초보상담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상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획득하고 내담자를 보호하는 차원 등과 같은 이유로 상담자 교육에 있어 슈퍼비전이 강조되고 있다(김계현, 2000). 상담관련 학위과정에서는 슈퍼비전이 하나의 전공과목으로 교육되어 지고 있으며,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전문상담사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등급의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어 슈퍼비전을 필수요소로 지정하여 상담자 수련에 있어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슈퍼비전의 중요성은 연구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슈퍼비전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슈퍼비전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강지연, 유성경, 2006; 손은정 외, 2006; 송은화, 정남운, 2005; 홍지영, 2008)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슈퍼비전 관계(최한나, 김창대 2008)에 관한 연구나, 슈퍼비전 모델(정유진, 2014)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점차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도,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슈퍼비전 연구를 살펴보면, 슈퍼비전에서 상황에서 초보상담자들의 특징

을 살펴 볼 수 있다. Bernard & Goodyear(1998)의 연구에 의하면 슈퍼비전에 임하는 초보상담자들은 슈퍼바이저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불안을 호소한다. 초보상담자들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슈퍼바이저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초보상담자들이 슈퍼비전에 몰입하기 보다는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불안에 노출시킨다. 또한 초보상담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하여 자신의 상담수행이 성공적이었는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수행에 대한 결과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상담결과와 자신의 수행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들의 특성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건강한 슈퍼비전 관계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Holloway(1997)에 의하면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상호관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성공적인 슈퍼비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며, 슈퍼바이저와 초보상담자의 슈퍼비전 관계는 초보상담자의 상담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onnestad & Skovholt, 1993). 따라서 성공적인 슈퍼비전을 위해서 슈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담수행에 대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수용적이고, 안정적이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Lowry, 2001).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초보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수행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자기회의 등의 부적정서를 수용 할 수 있으며, 상담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자신감을 획득하고, 결과 수용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성예경, 최한나(2011)에 의하면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상담수행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슈퍼바이저의 상담수행이 적절했음을 인정해주는 타당화개입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타당화개입은 슈퍼비전 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 상담 수행 결과에 대한 두려움,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불안과

자기회의감 같은 부적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수퍼바이저와 초보상담자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좋은 개입이 될 수 있다.

타당화란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를 창시한 Linehan(1997)이 제시한 일종의 공감개념이다. Linehan(1997)이 제시한 타당화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와 그 메시지 안에 존재하는 이해가능성을 발견하여 이를 말하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이해되며,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경험했던 정서나 느낌 등이 그랬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공감해주며 이러한 공감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김창대(2009)에 의하면 타당화란 내담자의 경험자체를 있는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유성경 등(2009)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이면에 있는 소망과 욕구를 찾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타당화를 정의 하였다. 타당화개입에 효과와 관련하여서 꾸준히 연구들(김은하, 2011; 고유림 김창대, 2015; 장혜미, 2017; 김빈나, 2018)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타당화개입에 대한 연구들은 타당화개입이 개입대상의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자기개념을 안정시키며, 자기수용의 증가와 관계맺음 정서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타당화개입이 주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지니지만, 타당화의 개념을 제시한 Linehan(1997)에 의하면, 타당화는 6단계 수준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수준별 분류는 타당화를 공감과 같은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차이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수준별 타당화개입 척도를 개발한 유성경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타당화개입의 효과는 각각의 개입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타당화개입 효과와 관련하여, 상담에서 얼마나 많은 타당화를 제공하였나 보다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제공하였는지가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밝혀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타당화연구는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3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담자가

경험한 느낌, 생각 소망 등을 읽어주어 이를 다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신뢰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경험 등을 신뢰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만든다. 5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행동이 상황과 맥락에 비춰볼 때, 타당했음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연구한 Lynch 등(2006)에 따르면, 타당화개입은 개입 대상으로 하여금 안정된 자기관형성과 정서적각성의 감소, 학습의지의 증가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타당화개입의 효과는 수퍼비전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적정서와 낮은 상담수행 능력과 높은 결과기대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부족한 자신감 등으로 인하여 초보상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상담수행능력 부족과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상담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 자신감 결여, 자기회의감 같은 부적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일반적인 상담장면에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연구하였다면, 수퍼비전상황에서 타당화개입을 시도해 봄으로 타당화개입의 사용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에 있어 타당화 3수준과 5수준의 개입에 대한 효과를 비교할 예정이다.

2. 연구문제

수퍼비전에서의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은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연구가설

연구가설1.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과 비교할 때, 부적정서에 있어 더 큰 감소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2.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과 비교할 때,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에 있어 더 큰 증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3.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은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과 비교할 때, 자기수용에 있어 더 큰 증가를 보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타당화

1) 타당화의 정의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던, 내담자의 언어와 인지를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인지행동치료(CBT)의 2세대물결은 1990년대 들어서, 인지행동치료의 3세대의 물결을 맞이한다. 인지행동치료(CBT)의 3세대 물결이란, 내담자의 사고와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보다는, 내담자의 경험을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강조하였는데,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와 변증법적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와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치료 등의 등장을 의미한다(Hayes, 2004) 이러한 새로운 접근들이 등장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발상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Hayes 등 1993).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건자체에 대한관심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났는지에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건에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로 초점이 옮겨져 가고 있다.

타당화란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으로, Linehan(1993)이 제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에서의 일종의 공감 개념이다. Linehan은 만성적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내담자들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입기술의 부재를 이야기 하였다. 기존의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수용 또는 변화의 한 가지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내담자로 스스로 자신에 존재에 대하여 수용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존재에 대하여 수용 받지 못하는 경험은 내담자의 감각을 활성화하며, 이러한 감각의 활성화는 인지적 혼란과 정보 처리에 있어 실패로 이어진다(Swann 등, 1992). 만성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inehan은 내담자의 모습을 수용하는 동시에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는 수용과 변화의 종합을 주장하였으며,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면서도 변화의 초점을 두기위한 방법으로 타당화 개입을 제시하였다. 타당화개입은 내담자의 왜곡된 기대나 신념에 대하여 반대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적극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그러한 근거들을 다시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Linehan, 1993).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타당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성경 등(2009)에 의하면 타당화는 일종의 공감개념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와 이해가능성, 즉 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김창대(2009)에 의하면 타당화란 내담자의 경험자체를 있는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Bohart & Greenberg(1997)에 의하면 타당화를 기존의 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으나 타당화는 공감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점을 갖는다. Linehan(1993)에 의하면 타당화와 공감은 내담자의 내적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이해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타당화는 단순히 내담자의 내적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돌려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적 참조의 틀(frame of reference)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담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과 차이점을 갖는다(허영주, 최한나, 2014). 또한 공감은 인간중심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에 비해 타당화는 행동중심이론에

근거하며, 내담자의 정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이해하고 전달한다는 데서 차이점을 지닌다(유성경 등, 2009).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타당화는 공감가는 다르게 여섯 가지 수준별 분류가 가능하며 각각의 수준에 따라 개입방식과 다른 효과를 갖는다(Linehan, 1997).

2) 타당화의 효과

Linehan(1997)은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준별타당화 개입의 효과는 타당화의 각 수준별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수준별타당화개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주는 부분이다.

Linehan(1997)이 제시한 수준별타당화 분류에 따르면 3수준의 타당화는 “Articulating the Unverbalized”라고 정의하였다. 유성경 등(2006)의 연구에서는 타당화 3수준의 개입에 대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타당화 3수준의 개입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내담자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읽어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상담자가 판단했을 때, 내담자라면 이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담자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이전에는 자신이 미처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지각하였어도 신뢰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에 대하여 지각할 수 있게 되며, 지속적인 상담자의 타당화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또는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이나 감정, 행동 등에 대하여 상담자가 알아주는 경험을 통하여,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경험을 통하여 내담자는 첫째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던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된다. 또한 그동안의 비수용적인 환경에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하여서도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을 통하여 확인하게 됨으로 자신에 감정이나 느낌에 대하여 확신을 얻는다. 둘째, 이러한 수용경험은 내담자에게 강력한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한다. 내담자는 이전에는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상담자가 인식하고 그것을 말해줌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확장된 의사소통을 경험한다. 이전에 내담자는 자신이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자신이 이야기 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하여서도, 상담자가 먼저 알아주고 이야기 해줌으로써 상담자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폭이 넓어진다.

Linehan(1997)이 제시한 수준별타당화 분류에 따르면 5수준의 타당화는 “Validating as Reasonable in the Moment”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성경 등(2006)에 의하면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맥락에서 타당함을 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5수준의 타당화는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의 사건이나 내담자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합리적이고, 근거있고, 의미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이나, 의사소통에서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이해받을 만한점들을 찾아서 내담자에게 전달해 준다.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내담자의 행동이 부적응적일지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이야기 해줄 수 있다.

Linehan(1997)에 의하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5수준의 개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동이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행동임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내담자의 깨달음은, 자신을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게 만든다.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Lynch 등(2006)의 연구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상담자의 타당화개입은 내담자로 하여금 안정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형성하도록 한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타당화를 통하여 자기개념과 불일치했던 경험을 재구성 하게 되는데 이

러한 경험의 재구성은 내담자의 자기감에 안정을 가져온다. 둘째로, 타당화개입은 정서적 각성의 감소를 가져온다. 자기개념에 대한 혼란은 내담자의 감각을 활성화 시키며 인지정보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Swann 등, 1992). 따라서 타당화 개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기관을 형성한 내담자는 정서적 각성에 있어 완화를 경험하며 이는 학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모의상담장면에서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고유림(2012) 연구에서는 타당화집단, 감정반영집단,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는 연구참여자들의 부적정서를 낮추고, 자기수용과 관계맺음동기를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자기에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신서원(2014)의 연구에서는 타당화집단과, 통제반응집단을 통하여 수치심과 분노, 공격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개입은 수치심과 분노,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김은준(2018)의 연구에서는 타당화 2수준 개입과 5수준의 개입 이전에 측정된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국군장병의 부정적 정서, 관계맺음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 일수록 국군장병의 자기수용과 부적 정서, 관계맺음 동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2. 수퍼비전

1) 수퍼비전의 정의

수퍼비전의 문자적 의미는, super(위에서)와 vision(바라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위에서 내려 보다”(Webster, 1966)라는 의미를 지닌다.

Loganbill 등(1982)에 의하면 슈퍼비전이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치료적 역량의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인관계적으로 집중된 일대일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Hart(1982)는 슈퍼비전을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있는 초보상담자의 상담수행 검토를 통해 초보상담자가 전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인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슈퍼비전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면 슈퍼비전이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슈퍼바이저가 초보상담자의 상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초보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행위(Bernard & Goodyear, 2004)이다.

상담자들의 경우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수업시간에 배운 상담이론을 적용해보고, 상담의 기법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담수행에서 초보상담자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초보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내담자를 향한 자신의 반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김계현(1992)에 의하면, 슈퍼비전은 상담자의 이론적인 영역과 실무적인 영역을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담자 교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Hill 등(1981)의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자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초보상담자가 슈퍼비전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특히 초보상담자의 경우 상담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적절한 개입방법의 부재, 부족한 사례개념화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발달을 할 것인지, 머물러 있을 것인지, 또는 침체될 것인지(Stoltenberg & Delworth, 1988)가 결정된다. 따라서 초보상담자가 한사람의 상담자로서 일정수준의 궤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슈퍼비전의 역할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슈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들이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퍼비전 방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절에서는 수퍼비전 모델들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2) 수퍼비전 모델

수퍼비전 모델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합의된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수퍼비전은 1800년도 후반 사회복지영역에서 훈련 중인 사회복지사들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작한 것으로, 상담분야에 있어서는 1925년 상담자 훈련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초기 수퍼비전 모델은 수퍼비전만의 고유한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 이론, 인지-행동이론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상담심리치료에 이론들에 기대어 발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수퍼비전에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발달모델이나 통합적 모델과 같은 수퍼비전이 갖는 고유한 목적에 기반한 모델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수퍼비전 모델의 발달은 수퍼비전이 상담의 하위요인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Benard, 2005).

Holloway(1992)의 경우 수퍼비전모델을 발달모델과 사회역할모델로 구별하였다. 이러한 Holloway의 관점을 받아들여, Benard & Goodyear(1998)는 수퍼비전 모델을 정신역동이론, 인간중심 이론, 인지행동이론 등의 심리치료에 기초한 모델과 발달 모델, 사회역할 모델, 그리고 통합적 모델로 구분하였다. Bradley & Ladany(2001) 수퍼비전 모델을 체제접근, 문제중심, 도식중심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모델과 발달모델, 그리고 심리치료에 근거한 모델로 구분하였다. Campbell(2000)의 경우 수퍼비전 모델을 분류하면서 행동주의 정신역동, 실존주의 등의 심리치료 이론에 기초한 모델과 발달모델, 상호작용 수퍼비전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수퍼비전 고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자살위험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하

여 Linehan이 제시한 심리치료이론인 변증법적행동치료이론(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의 개입방법의 하나인 타당화개입이 슈퍼비전에서 갖는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슈퍼비전 모델 중에서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A. 심리치료 모델

심리치료를 위해 개발된 심리상담이론의 개념들을 슈퍼비전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슈퍼비전 고유의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 슈퍼바이저들은 자신이 훈련받은 심리치료 이론에 기대어 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White & Russel, 1995). 심리치료의 모델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 이론들은 슈퍼비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즉 심리치료모델에서는 심리치료이론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슈퍼비전의 과정은 심리치료의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심리치료의 주요 모델에는 심리역동적모델, 인간중심모델, 인지행동 모델 등이 있다(Bernard & Goodyear, 2004).

첫째, 심리역동적 슈퍼비전(Psychodynamic Supervision) 모델은 정신분석적 심리이론에 근거를 둔다.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에 집중하며,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와 내담자 등의 타인들과 형성하는 저항, 전이, 역전이와 같은 심리 역동에 중점을 둔다(Bradley & Grould, 2001). 심리역동적 슈퍼비전은 정신분석의 이론과 같이 그 역사가 길다. 이미 1920년대에 들어 슈퍼비전이 이루어져 왔다(Bernard & Goodyear, 1998).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역동적 슈퍼비전의 모델로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는 상담에서 내담자와 슈퍼바이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리역동을 반복(Doehrmann, 1976) 하고 있다고 보는 평행과정모델(Parallel Process Model)이 있다.

두 번째, 인간중심 슈퍼비전(Person-Centered Supervision) 모델은

Rogers의 인간중심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중심적 접근은 내담자를 자기실현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으며, 상담자가 무조건적인 긍정과 관심, 공감적 태도와 진실성을 통하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성을 발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Rogers는 수퍼비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축어록과 회기보고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수퍼비전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Rogers의 인간중심 수퍼비전은 상담자에게도 스스로가 자신의 상담상황을 탐색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중심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역할은 수퍼바이지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김창대 등, 2006).

세 번째, 인지행동 수퍼비전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수퍼바이저의 행동과 정서가 인지에 따라서 발생되며,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다(Bradley, 2001). 인지행동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행동에서의 상담자의 수행은 학습된 기술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는 효과적인 학습된 기술을 가르치며, 상담자가 효과적인 학습기술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Rosenbaum & Ronen(1998)에 의하면 인지행동주의 수퍼비전의 목적을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Linehan(1979)에 따르면 인지행동 수퍼비전의 전략으로 반응조형, 반응촉진, 반응 학습, 반응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인지행동 수퍼비전은 다른 심리상담이론을 배경으로 한 수퍼비전 모델에 비하여, 수퍼비전 목표설정과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다.

3) 수퍼비전에서 타당화개입

수퍼비전은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의 핵심이다(김계현, 1992).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의 상담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을 받는 내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자 발달에 있어 슈퍼비전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적인 상담자 양성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슈퍼비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슈퍼비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슈퍼비전의 요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슈퍼비전의 성과분석을 실시한 Holloway & Neufeldt(1995)는 자신의 슈퍼비전 성과연구에서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수행을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슈퍼비전에서의 슈퍼바이저의 역할수행은 슈퍼비전의 성과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으며, 각각의 슈퍼바이저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입방법으로 슈퍼비전을 진행한다.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바이저는 스스로가 공부한 심리치료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심리치료 이론들은 정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정서를 다루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Whelton, 2004). 따라서 슈퍼비전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다루는 심리치료이론의 영향을 받아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정서를 다루는 개입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중심치료를 주창한 L. Greenberg는 정서를 다루는 것이 복잡한 인간 존재의 행동반응을 조절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Greenberg(2002)는 정서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개입이 없이도, 자신의 대한 자각과 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다. 정서를 수용한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을 활성화 하며, 자신 안에 있는 욕구와 목표에 맞추어 자기를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Linahan(1993)은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한 정서의 수용보다는 내담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담자 스스로의 자기구성개념이 인정되지 않을 때, 혼란을 경험하며 정서적 각성이 증가하며 증가된 정서적 각성은 인지적 혼란과 함께 새로운 정보처리의 실패로 이어진다(Swann 등, 1992). 따라서 내담자의 정서수용을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의 자기구성개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는 단순히 슈퍼바이저의

감정을 읽어주어 감정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도,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수용하고 새로운 자신을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란 Linehan(1993)이 자살 근접 행동(parasuicidal)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론이나,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에도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Marra, 2006). 특히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는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은 현재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에 대하여 수용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비수용적 환경은 내담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높은 각성 상태를 지속하게 만든다. 이러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타당화개입은 내담자가 하여금 자신의 경험이 이해받을 만하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을 수용하는 한편, 변화하고자 의지를 갖게 된다. Linehan(1993)에 따르면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이야기로부터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이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다시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타당화개입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과 동시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대한 개념을 조직하게 된다.

수퍼비전에서의 타당화 개입이란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의 상담수행에 대하여, 수퍼바이저가 직면했던 상담수행에서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나아가 수퍼바이저의 어려움이 타당했음을만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수퍼바이저의 타당화개입을 통하여 수퍼바이저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혹은 인식하였으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며, 나아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의 자신을 희망하도록 만든다.

3. 초보상담자

1) 초보상담자의 정의

초보상담자란 이제 막 상담에 입문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의미한다. Hogan(1964)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는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Skovholt & Ronnestad(1992)는 100여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통하여 6단계의 상담자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김계현(1992)이 “상담자 교육 발달단계 모형”을 제시한 이래로 상담자 발달을 평가하는 준거를 제시한 심홍섭(1998)의 연구 등 상담자 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보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나누는 공통된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교육수준, 상담경력, 슈퍼비전 경험 등을 중심으로 초보상담자와 숙련상담자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계현, 문수정, 2000; 손진희, 2002; 심홍섭, 1998).

심홍섭(1998)은 자신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교육수준, 상담경험, 슈퍼비전경험을 합하여 다시 상담자경험수준으로 환산하여 누적분포표에 따라 초보상담자, 중간상담자, 경력상담자로 구분하였으며, 김계현과 문수정(2000)의 경우 상담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교육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슈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1학기 이하)인 경우가 초보상담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손진희(2002)는 상담자를 분류하는데 있어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이거나, 교육경력 학기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슈퍼비전 횟수가 10회기 이하이거나, 상담회기 경험이 30회기 이하인 상담사 중 최소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초보상담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계현과 문수정(2000)이 정의한 초보상담자의 정의에 따라 대학원 교육수준 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 학기 수가 3학기 이하, 또는 슈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인 경우를 초보상담자로 구

분하였다.

2) 초보상담자의 특성

상담에 입문하여 배워가는 초보 상담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로, 초보상담자는 상담 중 내담자의 언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상담 수행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Hale & Stoltenberg, 1988)을 보인다. 초보상담자는 상담 중에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상담진행 방식이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신경쓰며, 내담자에게 적절한 개입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수행은 내담자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과 통찰이 빈약하다. 따라서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근거하기보다는, 이전에 배웠던 이론에 근거한 개입이 주를 이룬다.

둘째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을 진행하는데 전반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초보상담자가 호소하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첫째,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이다. 초보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에 어려움을 느낀다.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란 내담자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적 역동, 대인관계와 호소문제 등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계현, 2000). 상담자는 이러한 사례개념화를 통하여 상담 목표설정이나, 진행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초보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의 경우 내담자에 대하여 비현실적인거나 교과서적으로 행하여질 때가 많다. 초보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는 눈에 보이는 정보들에는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나, 대인관계, 심리적 역동, 애착유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에 대하여는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Stoltenberg, 1998). 이러한 초보상담자들의 부족한 사례개념화는 상담구조화에도 영향을 준다. 내담자에 대한 부족한 사례개념화는 초보상담자

의 상담목표를 설정을 피상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상적인 상담목표는 상담계획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한계를 지니게 된다.

셋째로, 초보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를 보인다. 상담의 경우 일정수준의 이론적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상담자는 상담수행에 있어 높은 동기를 보인다.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태도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나, 상담수행에 대한 의지를 고향하며, 상담수행에서 사용하는 개입방법들을 익히고, 수련하게 만든다 (Stoltenberg & Delworth, 1987). 그러나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높은 동기는 초보상담자가 수행하는 상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상담수행 결과가 성공을 반복한다면 초보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수행 능력에 대하여 지나친 과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상담수행 결과가 실패를 반복한다면, 자신에 상담자 자질에 대한 회의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슈퍼비전

슈퍼비전에 임하는 초보상담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호소한다. 초보상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주된 이유로는 그들의 상담자발달수준에서 보이는 특성과 관련이 높다. Ronnestad & Skovholt(2003)는 상담자 발달 단계를 여섯 가지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상담자의 발달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Ronnestad & Skovholt(2003)가 이야기한 상담자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4단계(초보전문가 상태)까지를 초보상담사라고 볼 수 있는데,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발달적 특성으로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 지식의 부족과 상담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Ronnestad & Skovholt(2003)의 구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상담자 발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초보상담자들은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한 상담사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대한 사례개념화 능력의 부족이나, 상

담을 구조화 하는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상담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슈퍼비전에 임하지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슈퍼바이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하여 신경쓰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호소한다.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특성은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홍지영(2008)에 따르면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은 슈퍼비전의 성과를 좌우한다. 따라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는 이러한 초보상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슈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수용해 줄 수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슈퍼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를 다루는 슈퍼바이저의 개입으로는 타당화개입(Linehan, 1993)이 있다. 타당화개입은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초보상담자가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정서경험이 그랬을 만하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초보상담자는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개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의 부적정서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부적정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Marra,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숭실대, 아주대)에 재학 중인 상담전공 석사과정생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상자를 초보상담자로 한정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보상담자의 기준은 교육학기 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상담경력이 3학기 이하, 또는 슈퍼비전 횟수가 15회 이하(1학기 이하)인 대상자를 초보상담자로 정의하여 선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5명의 참여자들 중 “시나리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4명과 연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을 제외한 6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4명과 여자 46명으로 분포 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22살-40세(M=27.45,SD=1.9)로 분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
성별	남	14	23.33
	여	46	76.66
나이	24	5	8.33
	25	16	26.66
	26	9	15
	27	10	16.66
	28	6	10
	29	3	5
	30	4	6.66
	31	1	1.66

	32	1	1.66
	35	2	3.33
	36	1	1.66
	39	1	1.66
	40	1	1.66
학력	석사 재학	51	85
	석사 졸업	8	13.33
	박사 재학	1	1.66
상담경력	1학기	26	43.33
	2학기	26	43.33
	3학기	2	3.33
	4학기	6	10
수퍼비전 횟수	1-5회기	46	76.66
	6-10회기	9	15
	11-15회기	5	8.33
	총합	60	100

본 연구는 60명의 참가자들을 수준별 타당화개입 정도에 따라 5수준 개입집단(30명)과 3단계 개입집단(30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2와 같다.

표2. 실험 집단 구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
타당화 3집단	남	6	10
	여	24	40
	합계	30	50
타당화 5집단	남	8	13.33
	여	22	36.66
	합계	30	50
	총합	60	100

2. 연구 도구

1) 연구자극

(1) 가상 시나리오

본 연구는 실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지만, 각각의 초보상담자들 간의 수준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상시나리오 이입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초보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Goodyear & Guzzardo(2000)에 의하면 초보 상담자들은 실제 상담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내담자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사례개념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초보상담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전문기술이나, 심리적인 지원 역시 부족하며, 이러한 요인은 초보상담자로 하여금 더욱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만든다. 또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는 초보상담자에게 상담수행에 대한 부담을 증가 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상담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본 시나리오는 초보상담자가 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가 상담을 수행하는 초보상담자들인 것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의 초안을 전공 교수1인, 박사 3인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로 작성되었으며, 가상 시나리오의 대본은 부록 1에 제시 하였다.

(2) 실험 자극(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

본 연구는 모의 슈퍼비전에서 수준별 타당화개입을 관찰한 초보상담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타당화 5수준의 개입을 담은 슈퍼비전 영상과 타당화 3수준의 개입을 담은 슈퍼비전 영상을 준비하였다. 타당화 5수준의 영상의 경우 실험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영상에 몰입하기 위하여, Linehan(1993)이 제시한 타당화 5수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했던 감정과 수행했던 상담수행에 대하여 타당화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화 3수준의 영상의 경우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했던 감정에 대한 타당화만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상담교수 1인과 박사 3인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영상을 촬영을 위하여, 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증 소유자를 섭외하여,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시켰으며, 초보상담자의 역할은 연구자가 맡아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타당화 3수준 개입 영상의 길이는 3분 30초이며, 5수준 개입영상의 경우 3분 45초였다. 각 영상의 시나리오는 부록 2와 3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적정서

본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타당화 개입영상을 시청한 후 초보상담자가 느끼는 부적정서의 감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홍창희(200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정서경험척도(2004)를 사용하였다. 한국정서경험 척도의 경우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정서경험 척도는 정적정서경험과, 부적정서경험을 측정하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필요한 부적정서만

을 측정하기 위하여, 22개의 문항중 11개의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88으로 보고되었다.

(2)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한 후의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Lent 등 (2003)이 Hill과 O'Brien(1999)이 제안한 조력기술모델과 Goodyear & Guzzardo(2000)의 상담자 기능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토대로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이수현 등(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척도CAESE(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의 경우 조력기술자기효능감(16문항), 회기관리자기효능감(15문항), 상담난제자기효능감(10문항)을 측정하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수퍼비전에서 타당화 개입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 조력기술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들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조력기술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의 개수는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15개의 문항 중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를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항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4번 문항을 제외한 14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조력기술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다시 탐색기술, 활동기술, 통찰기술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경청하기, 감정반영, 개방형질문, 재진술, 주의기울이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정보제공, 직접적인 지도 과제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찰기술을 구성하는 문항으로는 통찰자기개방, 직면, 탐색자기개방, 즉시

성, 침묵, 해석과 관련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수현 등(2007)의 연구에서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는 .81으로 보고되었다.

(3)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기수용이란 초보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수행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온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보상담자의 경우 자신의 상담수행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러한 초보 상담자의 상담수행에서의 부족함은 상담자라면 누구나 경험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상담수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타당화 개입영상을 시청한 후의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자기수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gg(2001)가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김사라형선(2005)이 자신의 연구에서 USQAQ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다. 그러나 고유림(2011)과 김은준(2018)의 타당화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60으로 떨어지는 문항들과, 문항-총점 상관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분이 .30이하로 떨어지는 8개의 문항을 제거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유림의 연구에서의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는 .87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 이다.

(4) 조작확인

본 연구는 슈퍼비전에서 수준별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써, 피험자가 지각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차이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준별 개입에 따른 집단원들이 지각한 타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7점 Likert 척도로 제시된 타당화 조작확인과 관련하여 6문항을 질문 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부록4. 에 제시하였다.

3. 실험절차

1) 실험과정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표 3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혼자서 모든 실험을 통제하고 진행하였다. 실험은 평균 20-25분이 소요되었다.

표3. 실험절차

순서	내용	자료	소요시간 (분)
1	실험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1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시나리오 자료	3
3	사전측정	부적정서 질문지	1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질문지	2
		자기수용 질문지	2
4	집단별 영상시청 (타당화 3수준)	타당화 3수준 동영상	4
	집단별 영상시청 (타당화 5수준)	타당화 5수준 동영상	
5	사후측정	부적정서 질문지	1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질문지	2
		자기수용 질문지	2
6	디브리핑		3

(1) 실험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본 실험을 시작하기 앞서

연구자의 정보와 함께 연구의 절차와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연구의 목적의 경우 사전에 이야기 해주는 것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험이 끝나고 설명해준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시나리오 읽고 이입하기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초보상담자 A가 자신이라고 생각한 후 읽어달라고 지시하였다. 약 2분 정도 시나리오를 읽도록 한 다음 피험자에게 눈을 감게 하고 연구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내용에 등장하는 초보상담자 A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초보상담자 A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지 최대한 분명하고 생생하게 상상해 주십시오. 제가 눈을 뜨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 주십시오.”

연구자의 지시를 듣고 나서 참여자들은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약 1분 정도 시나리오 속 인물에게 이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사전측정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피험자들은 사전측정을 위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사전측정에서는 시나리오를 읽은 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실시하였다.

(4) 집단별 영상 시청

사전 설문지를 마친 실험자들에게는 초보상담자 수준별 타당화 개입이 담긴 수퍼비전을 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하였다.

(5) 사후측정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피험자들이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 기호능감, 자기수용을 측정하는 사후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실시하였다.

(6) 디브리핑

사후측정을 위한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고 나서 피험자들은 실험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소감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피험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금(1만원)을 지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슈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 개입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수용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단계의 검증이 실시되었다. 먼저 각각의 개입의 사전점수들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이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각각의 개입에 대한 사후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3단계 타당화 개입집단과 5단계 타당화 개입집단 간에 효과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작확인

피험자들이 수준별 타당화 개입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영상에 따라 타당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질문하는 6문항에 대한 피험자가 응답한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41점 사이로 나타났다. 점수 결과는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33.80, SD=3.112)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27.33, SD=2.928)에 비해 지각한 타당화에 대한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지각한 타당화개입의 효과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피험자에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타당화 정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M	SD	t값	유의확률
타당화 정도	타당화 3수준 (n=30)	27.33	2.928	-8.289	0.000
	타당화 5수준 (n=30)	33.80	3.112		

* $p < .05$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 간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수퍼바이저의 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하기 이전인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하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각 집단 간 사전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부적정서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M=37.20, SD=6.21)과, 5수준의 개입집단(M=37.567, SD=6.96)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M=42.46, SD=9.36)과, 5수준의 개입집단(M=44.13, SD=10.07)과의 사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기수용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M=48.23, SD=7.98)과, 5수준의 개입집단(M=47.13, SD=5.52)과의 사전 점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두 집단 역시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5.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사전		t	p
		M	SD		
부적정서	타당화 3수준 (n=30)	37.200	6.2168	-.215	.830
	타당화 5수준 (n=30)	37.567	6.9614		
상담자활동 자기효능 감	타당화 3수준 (n=30)	42.467	9.3651	-.664	.510
	타당화 5수준 (n=30)	44.133	10.0781		
자기수용	타당화 3수준 (n=30)	48.233	7.9814	.621	.537
	타당화 5수준 (n=30)	47.133	5.5257		

* p < .05

각각의 집단참여자들의 정보를 살펴보면, 타당화개입 3수준 집단의 경우, 성별(남자7명, 여자23명) 나이(평균27.13세), 학력(석사재학25명, 석사졸업5명) 상담경력(1학기이하 12명, 2학기이하 16명, 3학기이하 2명),

수퍼비전경험(1-5회기 25명, 6-10회기 3명, 11-15회기 2명)으로 나타났으며, 타당화개입 5수준 집단의 경우, 성별(남자6명, 여자24명) 나이(평균 27.76세), 학력(석사재학26명, 석사졸업3명, 박사재학1명) 상담경력(1학기 이하 14명, 2학기이하 10명, 4학기이하 6명), 수퍼비전경험(1-5회기 21명, 2-10회기 6명, 11-15회기 3명)으로 나타났다.

3. 부적정서 변화

초보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측정된 불안의 사전 검사 점수와, 타당화개입 영상 시청 이후 측정된 불안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집단별 부적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
	M	SD	M	SD	
부적 정서 타당화 3수준 (n=30)	37.200	6.2168	24.333	7.5170	12.8667
타당화 5수준 (n=30)	37.567	6.9614	19.167	5.7059	18.4000

표7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과 타당화 5수준의 개입집단의 불안에 관한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t검증 결과, 두 집단의 불안에 대한 사전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수준별 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 후, 측정된 불안의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

여, 수준별 타당화 개입에 따른 부적정서 감소에 관한 효과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었다. 불안의 사후점수의 평균은 타당화 5단계 개입집단(M=19.16, SD=5.70)이 3단계개입집단(M=24.33, SD=7.51)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수준의 타당화 개입집단의 사후 점수가 3수준의 타당화 개입 집단의 사후점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타당화 5수준의 개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7. 불안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사후		t	p
		M	SD		
부적정서	타당화 3수준 (n=30)	24.333	7.5170	2.999	.004
	타당화 5수준 (n=30)	19.167	5.7059		

* p < .05

4.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변화

초보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측정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와 , 수준별 타당화개입영상 시청 후에 측정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표는 표8에 제시하였다.

표8. 집단별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
		M	SD	M	SD	
상담자 활동	타당화 3수준 (n=30)	42.467	9.3651	55.567	9.2277	-13.1
자기 효능감	타당화 5수준 (n=30)	44.133	10.0781	66.833	6.6233	-22.7

표5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과 타당화 5수준의 개입 집단의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에 관한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준별 타당화개입영상 시청이후,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수준별타당화개입에 따른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증가에 관한 효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의 사후점수의 평균은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66.83, SD=6.62)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55.56, SD=9.2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점수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수준별타당화개입의 효과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의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는 타당화 5수준의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9.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사후		t	p
		M	SD		
상담자활동 자기 효능감	타당화 3수준 (n=30)	55.567	9.2277	-5.433	.000
	타당화 5수준 (n=30)	66.833	6.6233		

* p < .05

5. 자기수용 변화

초보 상담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이입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피험자가 지각한 자기수용에 대하여 측정한 자기수용 사전 검사 점수와, 수준별타당화개입 영상 시청 후에 피험자가 경험하는 자기수용에 대한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10에 제시하였다.

표10. 집단별 자기수용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전-사후)
	M	SD	M	SD	
자기수용 타당화 3수준 (n=30)	48.233	7.9814	52.600	6.6051	-4.367
타당화 5수준 (n=30)	47.133	5.5257	53.933	5.5019	-6.8

표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타당화 3수준의 개입집단과 타당화 5수준의 개입집단의 자기수용에 관한 사전점수에 대하여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의 수준별타당화개입 영상을

시청 한 후, 측정한 자기수용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따른 자기수용 증가에 관한 효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자기수용 사후점수의 평균은 5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 (M=53.933, SD=5.5019)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M=52.600, SD=6.605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점수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수준의 타당화 개입집단의 사후 점수가 3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의 사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슈퍼비전에서의 타당화 3수준의 개입과 타당화 5수준의개입은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자기수용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

표11. 자기수용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사후		t	p
		M	SD		
자기수용	타당화 3수준 (n=30)	52.600	6.6051	-.850	.399
	타당화 5수준 (n=30)	53.933	5.5019		

* $p < .05$

V.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의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수용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으로는 현재 상담을 공부 중에 있는 초보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험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초보상담자에게 상담수행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담긴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몰입하게 만들었다. 초보상담자를 시나리오에 이입 시키는 절차를 거친 후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에,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타당화 3수준과 5수준의 개입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부적정서,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 대한 사후 측정을 실시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분석을 위하여서는 두 단계의 검증이 실시되었다. 첫째로,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의 사전점수에 대하여 독립t검증을 실시하여 각각의 집단들이 동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둘째로, 수준별 타당화개입 이후 측정된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자기수용의 사후점수에 대한 평균비교를 통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적정서에 대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사후점수 비교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이 낮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 또한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이 낮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의 가설이 본 연구를 통해 지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자기수용의 사후점수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이 낮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연구가설이 실험을 통해 지지받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준별 타당화개입 결과에 대한 논의

Linehan(1993)이 제시한 타당화개입은 여섯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경우에는 3수준의 타당화개입과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유성경 등, 2006)으로 정의될 수 있다. 3수준의 타당화개입은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나 느낌 등을 상담자가 알아주고, 내담자에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3수준의 타당화개입은 내담자로 하여금 이전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주변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던 감정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용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상담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그동안 이야기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5수준의 타당화개입이란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 맥락에서 타당함을 전달해 주는 것(유성경 등, 2006)으로 정의될 수 있다.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이 현재의 맥락에서 타당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타당화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수용하면서도,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비교한 유성경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타당화개입의 효과는 타당화개입을 받은 횟수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 얼마나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중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유성경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의상담에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감정반영의 효과와 비교한 고유림(2012)의 연구에서는 타당화개입이 감정반영과 비교할 때, 부적정서와 자기수용, 관계맺음 동기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효과를 가져 온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3수준의 타당화개입에 대한 정의와 효과를 살펴보면, 3수준의 타당화개입은 상담개입 방법 중 하나인 감정반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반영(reflection)이란 내담자의 메시지나, 메시지 안에서 상담자가 판단한 내담자의 감정을 진술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Hill & O'Brien(2001)은 감정반영에 효과에 대하여 감정반영은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였어도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인지하게 하며,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3수준의 타당화개입이 감정반영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인은 감정반영과 5수준의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비교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고유림(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타당화개입에 관한 자기수용점수를 살펴보면, 3수준과 5수준의 개입 모두 자기수용의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점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준별 타당화개입 이후에 측정한 사후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의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5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이 3수준의 타당화개입을 받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수용의 증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이 자기수용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설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다.

몇몇의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 영상에서 타당화를 제공해 주는 수퍼바이

저 선생님의 이야기와 행동이 따듯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수퍼비전에서 이러한 수퍼바이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연구의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극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상담에서 비언어적인 행동이 내담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동연, 한미령(1991)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고개 끄덕임, 내담자와의 눈 맞춤, 내담자를 향한 몸의 기울임 등의 비언어적 행동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3분 30초 정도의 영상의 길이를 생각해 볼 때, 수퍼바이저의 수용적인 행동이 초보상담자가 지각한 자기수용에 있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상황에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상담장면에서의 타당화개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준별 타당화개입이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상황에서 초보상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정서와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과 자기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타당화개입이 효과를 보이는 맥락과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로 이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초보상담자라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수퍼바이저와 초보상담자의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이는 효과적인 수퍼비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수퍼비전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수퍼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의 적절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국내의 수퍼비전 연구의 경우 수퍼바이저가 지각한 수퍼비전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퍼비전에서 사용되는 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타당화개입일수록 초보상담자가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와 조력기술효능감의 증가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통해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와 성공적인 수퍼비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수퍼비전을 이끌어 나가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셋째로 본 연구는 모의 수퍼비전영상을 통하여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는데서 의의를 갖는다. 상담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는 현장연구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연구는 실험연구와 비교할 때, 실험자가 각각의 변인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진다는 어려움이 있다(김계현, 2000).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에서의 수준별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택함으로 현장연구와 비교할 때,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상담에서의 개입의 효과를 확인한 기존의 연구(김은하, 2011; 윤정순, 2010; 이정민, 2012; 고유림, 2013; 신서원, 2014; 김은준 2018;)등 과 비교할 때, 연구의 대상이 잠재적 수행대상자가 아니라, 실제 상담을 진행 중인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외적타당도 또한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초보상담자 집단을 대표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의 대상자인 초보상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김계현 문수정(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서울, 경기지역 5개 학교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높으며, 대부분의 성별이 여자이고, 평균 나이가 27세라는 점 등에서 전체적인 초보상담자 집단을 대표하는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참여자 그룹의 성격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실제 수퍼비전상황이 아닌, 모의수퍼비전 상황에서의 타당화개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의수퍼비전은 실제수퍼비전과 비교할 때,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선정, 수퍼비전 대화의 주제, 수퍼비전에서 보여주는 행동 등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었으나, 실제 수퍼비전 상황과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수퍼비전 상황에서의 타당화개입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지연, 유성경 (2006). 수련자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 효과 검증. **상담학 연구**, 7(4), 1005-1021.
- 고유림, 김창대(2015).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자기수용, 관계맺음동기 및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모의상담 상황에서.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7, 1-21.
- 김계현(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9-53.
- 김계현(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김계현(2002). 카운슬링 의 실제(2판). 서울: 학지사.
- 김계현, 문수정(2000). 상담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나영(2015). 타당화 개입이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중재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준(2018). 타당화 개입의 수준차이가 자기수용, 부정적 정서 및 관계 맺음동기에 미치는 효과 - 육군장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은하(2011). Comparative effects of empathic verbal responses on negative affect after social exclusion.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2009).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769-792.
- 김창대(2009).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한 가설: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해**, 30(2) : 21-43.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현정(2005). 상담자 발달 수준과 자기 위로 능력 및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3, 105-135.
- 김혜경(2012). 대학생의 상담전문가에 대한 도움요청 연구: 도움요청태도가 도움요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93-111.
- 서은경(2011). 슈퍼바이저의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성예경, 최한나(2011). 내담자의 타당화 경험이 작업동맹과 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15-332.
- 신서원(2014). 타당화가 자기에 성향자들의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심홍섭(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28.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18(4), 695-711.
- 손진희(2002). 상담자 경력별 알아차림 방해요소 지각 정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63-580.
- 송재영, 이윤주. (2014).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의 공감유형의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5(1) : 125-144.
- 오현수, 한재희(2009). 상담전문가 발달과정에서의 좌절극복경험 분석. **상담학연구**, 10(1), 109-124.
- 유성경, 손난희, 김창대, 홍세희, 권경인, 한영주, 윤정숙, 윤정순(2009). 상담자의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0, 1873-1889.
- 유영권 외 (2013). 상담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영순(2010). 초보 상담자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성과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 유현경(2015). 집단따돌림 모의상황에서 상담자의 타당화 수준이 초등학생의 우울, 보복심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김계현(1993). 상담회기 평가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1), 30-47.
- 이기은, 조유진(2009). 성인애착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1-204, 한국인간발달학회.
- 이운주(1997). 상담 슈퍼비전의 과정과 성과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진석(2012).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이선혜(2002).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 행태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36-57.
- 최한나, 김창대(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0(1), 1-21.
- 허영주, 최한나 (2014). 상담자의 경력, 인지적 복잡성 및 정서적 복잡성이 타당화 개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5(1), 93-105.
- 홍지영(2008).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9(4), 1489-1504.
- 홍창희(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 Bemak, F., & Epp. L. R. (2001). Counter trans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greduate student group counselors: Recommendations for train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6, 305-318.
- Bernard, J. M., & Goodyear, R. K. (1998). Clinical Supervision: Lessons From the Literatur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8, Vol.38(1), p.6-22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3rd ed.)*. Boston : Allyn & Bacon.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8). **상담 수퍼비전의 기초** (제3판){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유영권, 방기연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원전은 2004년에 출판).
- Bohart, A. C, & Greenberg, L. S. (1997). Empathy and psychotherapy: An introductory overview. In A. C. Bohart & L. S. Greenberg(Eds.), *Empathy reconsidered* (pp. 3-31).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rders, L. D, A (1989). A pragmatic agenda for developmental supervision research.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Volume29, Issue1, September 1989, Pages 16-24.
- Bradley, L. J., & Ladany, N. (Eds), (2001). Counselor supervision: Principles, process, and practice(3rd ed). *Philadelphia: Brunner-Routledge*.
- Campbell, J. M. (2000) Becoming an effective supervisor: A workbook for counselors and psychotherapists. *Philadelphia, PA: Accelerated Development*.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77-89.
- Ellis, A. (1996). *Better, deeper, and more enduring brief therapy: the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pproach*. New York, NY: Brunner/Mazel, Inc.
- Goldstein, A. P. , Heller. K. , & Sechrest, L. B. (1966). *Psychotherapy and the Psychology of behavior change*. *New York, NY: Wiley*.
- Goodyear RK, & Bernard JM. (1998) Clinical Supervision: Lessons

- From the Literature.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1998;38(1):6.
- Goodyear, RK, & Guzzardo, C. R. (2000). Psychotherapy supervision and train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83-108).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Greenberg, L. S. (2002). *Emotional-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eenberg, L. S., & Pavio, S. C.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홍표 옮김).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7)
- Hale, K., & Stoltenberg, C. D. (1988). The Effects of Self-Awareness and Evaluation Apprehension on Counselor Trainee Anxiety. *Clinical Supervisor*, 10 August 1988, Vol.6(1), p.49-70
- Hart, G. (1982). *The process of clinical supervision*.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 Hayes, S. C. (1994). *Content, context, and the type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pp.13-32). Reno, NV: Context Press.
- Hill, A. P., Hall, H. K., Appleton, P. R., & Kozub, S. A. (2008).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junior elite soccer players: The mediating influence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630-644.
- Hill, C. E., Charles, C., & Reed, K. G. (1981).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anges in counseling skills during doctoral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428-436.

- Hill, C. E., & O' Brien, K. M. (2001). **상담의 기술**. (주은선 옮김).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9).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Holloway, E. L., Freund, R. D., Gardner, S. L., Nelson, M. L., & Walker, B. R. (1989) Relation of power and involvement to theoretical orientation in supervision: An Analysis of 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88-102.
- Holloway, E. L. (1992). *Supervision: A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S. D. Brown., & R.W. Lent (2nd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 NY: John Wiley & Son.
- Holloway, E. L.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2). p.207-21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Kadushin. (2008) What's Wrong, What's Right with Social Work Supervision, *The Clinical Supervisor*, 10:1, 3-19.
- Kaiser, T. L. (1997). *Supervisory relationships: Exploring the human element*. Belmont, CA, US: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inehan, M. M. (1997). *Validation and psychotherapy*. In A. Bohart & L. S. Greenberg (Eds.),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pp. 353-392). Washington,

-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nehan, M. M., Dimeff, L. A., Reynolds, S. K., Comtois, K. A., Welch, S. S., Heagerty, P., & Kivlahan, D. R. (2002).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7, 13-26.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Lowry, J. L. (2001). *Supervisor and supervisee characteristics*. San Francisco, Ca.
- Lynch, T. R., Champman, A. L., Rosenthal, M. Z., Kuo, J. R., & Linehan, M. M.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Theoretical and empirical observ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59-480.
- Marra, T. (2006). **변증법적 행동치료**. (신민섭 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5).
- Rogers, C. R. (1942).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aum, M., & Ronen, T. (1998). Clinical supervision from the standpoint of cognitive-behavior 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2), 220-230.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 New York : J. Wiley.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3).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04 March 1993, Vol.71(4), pp.396-405.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45-58.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5). Mastery and expertise in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1), 13-18.
- Stefl & Prosperi, (1985)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85, Volume 21, Number 3, Page 167.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The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eries.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approach.*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 Swann, W., Jr., Stein-Seroussi, A. S., & Giesler, R. B. (1992). Why people self-verif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392-401
- Whelton, W., J. (2004). Emotional processes in psychotherapy: evidence across therapeutic modalitie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Volume(11), p. 58-71.
- Wiley, Mary O'Leary ; Ray, Philip B. (1986). Counseling Supervision by Developmental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6, Vol.33(4), p.439-45.
- Yontef, G. (1997). *Supervision from a Gestalt perspective*. In E. Watkins,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pp. 147-163). New York: John Wiley & Sons.

부 록

부록 1. 가상 시나리오

*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초보상담자 A 의 입장을 상상해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오늘은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 OO씨와 4회기 상담이 있는 날이다. 상담은 오후 5시이지만 A씨는 이른 아침부터 오늘 오후 상담이 신경이 쓰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A씨는 내담자를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고 무섭다.

A씨가 상담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A씨의 내담자가 반응이 너무 없다는 점이다. 내담자의 반응 없는 태도가 마치 A씨가 초보상담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A씨는 내담자가 차라리 자신한테 화를 내던지, 울어도 좋으니 반응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회기에는 내담자가 너무 반응이 없고 A씨도 할 말이 없어서 5분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A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상담을 10분 일찍 끝냈다.... A씨가 상담이론 수업을 배울 때는 내담자의 침묵도 상담에 있어 중요한 소재라고 배웠는데, 실제와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가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담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다. 자신이 프로이드나 로저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내담자와 라포도 형성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인지행동 기법을 적용하여 내담자를 잘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 4회기를 맞이한 지금 A씨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수

업시간에 배웠던 이론이나 기법도 실제 상담실에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상담시간에 내담자에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심지어 저 내담자가 우울증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하기만 하다.

내일은 처음으로 슈퍼비전이 있는데 A씨는 걱정이 앞선다. 슈퍼바이저 선생님에게 상담을 이렇게 했다고 혼이 날 것만 같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상담에 소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겁이 난다.

부록2. 타당화 3단계 영상 축어록

타당화 3단계

수1: 상담은 어땠나요?

상1: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진행한 상담은 쉽지 않았어요.... 상담이 제 생각과 너무 다르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론으로 배웠을 때는 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내담자가 너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수2: 처음으로 맡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00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웠고, 잘 했는지 걱정도 되었다는 거죠?

상2: 네. 수업시간에 이론으로 상담을 배울 때는 저도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배웠던 것이 생각이 잘 나지도 않았고요.

수3: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상3: 네 맞아요. 제가 상담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특히 내담자가 반응을 잘 해주지 않아 더 힘들었어요. 내담자가 말이 없었는데, 제가 제대로 상담을 못하고 있어서 내담자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수4: 00씨는 내담자가 반응을 잘 해주지 않았던 것이 “혹시 00씨 탓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더욱 힘들어 하는 것 같군요.

상4: 맞아요... 내담자가 반응이 없었던 점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돼요. 이 내담자와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상담을 잘 할 수 있을지...

수5: 첫 상담 케이스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가 보군요. 그러한 00씨의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00씨가 좋은 상담자가 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00씨가 이번일로 이하여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한다면, 앞으로 00씨가 계속해서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 할 수도 있어요.

상5: 아.. 그럴까요?? 이러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까요?? 저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상담케이스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상담을 공부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상담에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되고.. 이제는 돈도 벌어야 하는데 상담을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수6: 물론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00씨의 앞으로의 상담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만 봐도 00씨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00씨가 앞으로 좋은 상담사가 될 수도, 아니면 계속해서 상담을 어려워 할 수도 있어요.

상6: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겠군요. 이번에는 제가 맡은 첫 케이스라서 그런지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한다면 저 역시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록3. 타당화 5단계 영상 축어록

타당화 5단계

수1: 상담은 어땠어요?

상1: 상담이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수업에서 이론으로 배울 때는 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내담자가 너무 반응이 없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수2: 맞아요. 처음 상담 할 때는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반응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00씨는 상담을 잘 하고 싶었나 봐요?

상2: 네, 맞아요. 상담을 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상담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해 본적이 없었어요. 이론도 많이 외웠고, 나름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막상 내담자를 만나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내담자가 반응이 없으니, 그점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말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제가 하는 말을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리 행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3: 00씨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았나 보내요? 그렇죠.. 상담실에서의 내담자의 반응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준비했던 것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 또한 상담을 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3: 아!!! 선생님도 생각하신 것처럼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수4: 네 맞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대로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4: 그러시구나...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각한대로, 상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그런데 선생님도 생각하신대로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해주시니... 놀랍네요. 상담은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수5: 그죠. 상담은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이 없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방법 또한 익숙해 질 거라고 생각해요.

상5: 아... 내담자가 반응이 없는 것이 제가 상담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수6: 내담자가 반응이 없는 것은 00씨가 잘못해서 일수도 있지만, 내담자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 일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담이 4회기 진행된 것으로 보아 00씨가 상담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아마 내담자가 반응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6: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상담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난번에는 상담시간이 10분 일찍 끝나기도 했거든요.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었나? 내가 상담에 소질이 없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거든요.

수7: 음, 00씨가 상담을 10분 일찍 끝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담자가 의지가 없는데, 상담자가 계속해서 상담을 끌고 간다고 해서 상담이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았어도 상담을 일찍 끝냈을 것 같아요.

상7: 아 정말이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이 소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록4. 타당화 조작확인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초보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이해가 된다.	1	2	3	4	5	6	7
2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의 감정을 잘 반영해 주었다.	1	2	3	4	5	6	7
3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가 자신의 상담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1	2	3	4	5	6	7
4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감정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미에 대하여 알게 해 주었다.	1	2	3	4	5	6	7
5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가 상담에서 취한 (감정, 행동) 반응의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주어, 초보상담자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해 주었다.	1	2	3	4	5	6	7
6	수퍼바이저는 초보상담자의 마음을 잘 읽어 주었다.	1	2	3	4	5	6	7

부록5. 사전 질문지

1. 당신이 이 이야기 속의 초보상담자라면,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을지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분노한	1	2	3	4	5
2	부아가 나는	1	2	3	4	5
3	두려운	1	2	3	4	5
4	겁나는	1	2	3	4	5
5	신경질 나는	1	2	3	4	5
6	속상한	1	2	3	4	5
7	기가 막히는	1	2	3	4	5
8	상실감 느끼는	1	2	3	4	5
9	소외감 드는	1	2	3	4	5
10	짜증나는	1	2	3	4	5
11	억울한	1	2	3	4	5

2. 당신이 이야기 속의 초보상담자라면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1	2	3	4	5	6	7
2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1	2	3	4	5	6	7
3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1	2	3	4	5	6	7
4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서 말해준다.	1	2	3	4	5	6	7
5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1	2	3	4	5	6	7
6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친다.	1	2	3	4	5	6	7
7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지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1	2	3	4	5	6	7
8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1	2	3	4	5	6	7
9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1	2	3	4	5	6	7

10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1	2	3	4	5	6	7
11	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1	2	3	4	5	6	7
12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당신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 놓는다	1	2	3	4	5	6	7
13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1	2	3	4	5	6	7
14	내담자가 겉으로 말한 것 이상을 이야기해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1	2	3	4	5	6	7

3.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당신이 이야기 속 초보상담자 입장이 되었다고 할 때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내 행동 혹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1	2	3	4	5	6	7
3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	2	3	4	5	6	7
4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1	2	3	4	5	6	7
5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1	2	3	4	5	6	7
6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6	7
7	내가 그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내가 어떤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면,	1	2	3	4	5	6	7

	내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9	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1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진 않는다.	1	2	3	4	5	6	7
12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해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부록 6. 사후 질문지

1. 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라면, 수퍼비전을 받은 후 다음의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을지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분노한	1	2	3	4	5
2	부아가 나는	1	2	3	4	5
3	두려운	1	2	3	4	5
4	겁나는	1	2	3	4	5
5	신경질 나는	1	2	3	4	5
6	속상한	1	2	3	4	5
7	기가 막히는	1	2	3	4	5
8	상실감 느끼는	1	2	3	4	5
9	소외감 드는	1	2	3	4	5
10	짜증나는	1	2	3	4	5
11	억울한	1	2	3	4	5

2. 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라면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1	2	3	4	5	6	7
2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1	2	3	4	5	6	7
3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1	2	3	4	5	6	7
4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서 말해준다.	1	2	3	4	5	6	7
5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1	2	3	4	5	6	7
6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친다.	1	2	3	4	5	6	7
7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지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1	2	3	4	5	6	7
8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1	2	3	4	5	6	7
9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1	2	3	4	5	6	7
10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	1	2	3	4	5	6	7

	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11	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1	2	3	4	5	6	7
12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당신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 놓는다	1	2	3	4	5	6	7
13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1	2	3	4	5	6	7
14	내담자가 겉으로 말한 것 이상을 이야기해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1	2	3	4	5	6	7

3.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당신이 이 동영상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사의 입장이라 할 때, 다음의 문항들이 상담자의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내 행동 혹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1	2	3	4	5	6	7
3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	2	3	4	5	6	7
4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1	2	3	4	5	6	7
5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1	2	3	4	5	6	7
6	나의 자기 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6	7
7	내가 그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내가 어떤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9	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	1	2	3	4	5	6	7

	은 특별히 가치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1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진 않는다.	1	2	3	4	5	6	7
12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해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Abstract

The effect of supervisor's validation intervention on novice counselor's negative emotions, counselor self - efficacy, self - acceptance in supervision.

Park, SangKil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pervisor's level validation intervention on novice counselor's negative emotions, counselor self - efficacy, self - acceptance in novice counselors in supervision.

For this study, 60 subjects composed of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majors in Seoul and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and a level 3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Independent t-tests were used to analyze the stud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motional decrease compared to the 3-level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Second, the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elf - efficacy of counselor activity compared to the level 3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Finally, in the case of self-accepta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5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and the level 3 validation intervention group.

In conclusion, the level of validation intervention in the supervisor for the novice counselors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reducing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increasing the self-efficacy of the counselor as the higher level of validation intervention.

From these resul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supervision situation we have identified ways to deal with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and fear experienced by novice counselors. In addition, because the validation intervention has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level, supervisors can be encouraged provide appropriate level-validation intervention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when supervision is conducted.

keywords : supervision, validation intervention, level validation intervention, novice consultant

Student Number : 2017-23646